

광주시 ‘2년 무실적’ 택시 감차...이번엔 성공할까

출연금 등 36억 확보해 올 56대 사 들이기로

2035년까지 1268대 감축 ... 재원 확보 관건

광주시가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올해도 감차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과거와는 달리 시비를 대폭 증액하고 국토교통부의 감차 인센티브, 택시사업자의 출연금 등으로 예산을 확보해 최대한 실거래가 수준에 맞춰 법인·개인택시사업자의 번호판 반납을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국비와 시비 등 36억원을 투입, 개인과 법인택시 각각 16대와 40대를 사들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20년간 총면허대수 8209대 가운데 15.44%인 1268대를 줄일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로 3년째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감차(減車) 보상비로 법인 4500만원, 개인 1억1000만원을 제시했으며 조만간 감차위원회를 다시 열어 실거래가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2016년과 2017년 1300만원 수준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다.

시는 지난 2016년 16대, 2017년 64대의 택시를 줄이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택시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받지 못하면서 국비와 시비로만 감차 보상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시 감차위원회는 택시사업자 출연금 규모를 매달 법인택시 대당 1만7600원, 개인택시 대당 5만2000원으로 결정했으나 이를 징수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감차한 실적은 전무

했으며, 2년간 5억여 원의 국비를 받는데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올해 시비 12억원, 80억~100억원으로 추정되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 인센티브 중 12억원, 택시사업자 출연금 12

억원 등 36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택시사업자 출연금이나 감차 인센티브가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36억원의 예산으로 개인택시 16대(18억원), 법인택시 40대(18억원)의 번호판을 사들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사업자의 출연금이나 인센티브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사업비를 제대로 마련한다면 개인 간 택시거래 건수가

연간 150~170건에 달해 감차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이와 함께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2009년 11월 이후 면허 취득 개인택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택시 감차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광주 택시 수는 법인은 76개 업체에 3407대, 개인은 4797대 등 모두 8204대가 운행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에 택시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일부 택시를 줄이는 감차를 추진한다.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승강장에 빈 택시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지역 고령화·저출산 그늘

요양병원·한의원·치과 증가

10년전보다 11.3% 늘어

전남지역 인구가 고령화·저출산 추세로 인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 새 요양병원과 한의원, 일반·치과의원은 증가하고 약국은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호남지방통계청의 2008년과 2017년 전남지역 병·의원·약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남지역 병·의원과 약국은 3322곳으로 10년 전인 2008년 2986곳보다 336곳(11.3%) 늘었다.

요양병원은 2008년 30곳에서 2017년 79곳으로 두 배(49%) 이상 늘었으며, 한의원은 2008년 280곳에서 2017년 365곳으로 85곳(30.4%) 늘었다. 요양병원과 한의원의 급증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를 반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의원도 2008년 862곳에서 2017년 931곳으로 69곳(8%) 증가했다. 치과의원도 2008년 342곳에서 2017년 460곳으로 98곳(28.7%) 늘었다.

반면 약국은 2008년 801곳에서 2017년 792곳으로 9곳(1.1%) 감소했다. 조산원은 2008년 4곳(목포 2곳, 여수 1곳, 무안 1곳)에서 2017년 3곳(목포 2곳, 무안 1곳)으로 줄었다.

지난해 기준, 병·의원·약국이 100곳 미만인 전남 기초자치단체는 구례군(56곳), 진도군(68곳), 강진군(70곳), 곡성군(70곳), 신안군(74곳), 장성군(78곳), 함평군(78곳), 장흥군(80곳), 담양군(97곳), 완도군(97곳), 보성군(99곳) 등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깨끗한 축산농장’

전남도, 102곳 지정

전남도는 지역 축산농장 102곳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정부 국정과제이자 농림축산식품부의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된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종별로 한·육우 52개, 젖소 5개, 돼지 16개, 닭 29개다.

지역별로는 함평 19개, 고흥 8개, 무안 8개, 순천·나주·곡성·해남 7개씩, 영광·장성 6개씩, 보성·화순·강진 5개씩, 신안 4개, 담양 3개, 완도 2개, 광양·구례·진도 1개씩이다. 전남도는 가축분뇨 개별처리 시설과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축산 정책사업 시행 시 해당 농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20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2022년까지 10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학숙, 31일까지

입사생 165명 모집

전남도가 운영하는 공공가속사인 전남학숙이 신규 입사생 165명을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다.

대상은 광주시와 인접 시·군 소재 대학의 학생이거나 대학 졸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이다.

공고일인 8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남으로 돼 있고, 보호자의 도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입사 신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또는 전남학숙 누리집(www.jnhs.kr)에서 원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전남학숙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5일 전남학숙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당원명부 유출의혹, 정치적 고려없이 진상규명을”

강기정 전 국회의원 기자회견

6·4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이 최근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원 명부를 불법 취득해 사용했다면 이는 당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다”고 지적하고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에 따른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또 “유출 의혹이 제기된 지금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정치적 고려와 같은 일이 있으면 명부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른 당내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들과 명부 유출 의혹에 공동대응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서로 구체적인 의견

을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명부 유출 의혹은 광주시장 경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민주당 후보의 문제”라면서 “특정 후보 간의 싸움으로 몰아가 물타기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의원은 이어 광주 현안에 공동 대응할 ‘현안 협의 테이블’ 가동과 공동 정책 토론회 개최, 민·관·당 거버넌스 구축 등을 다른 출마 예정자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제안했다. 그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한전 공대 설립, 광주 민군공방 이전 및 무안공항 활성화, 에너지·자동차·문화 3대 밸리 등에 대해 논의하자”며 “후보 싱크탱크는 물론 선거를 넘어서 지역의 모든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당 거버넌스가 광주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윤영렬 수석감사관 내정

광주시 신임 감사위원장에 윤영렬(55·사진) 감사원 수석감사관이 내정됐다.

광주시는 9일 “윤영렬 감사위원장 내정자는 현재 감사원 소속 수석감사관으로 풍부한 감사경험과 올곧은 성격으로 설득과 동의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감사로 조직의 신뢰를 이끌어 낼 적임자로 판단해 감사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감사원 재직 시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부감사관, 심의실 조정2담당관, 특별조사국 수석감사관을 역임



했다. 감사위원장은 광주시 감사위원회 수장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고 총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는 감사원과 임용절차 협의과정을 거쳐 오는 15일 윤 내정자를 감사위원장에 임명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141개 우수 숲 한눈에 본다

화보집 ‘숲과 사람을 담다’ 제작

숲의 위치·특이 사항 등 담겨

전남도가 지역의 우수 숲 모습을 담은 화보집 ‘숲과 사람을 담다’를 1000부 제작해 배부한다.

이 화보집은 295쪽 분량으로 산림청 주관 녹색도시·명상숲 우수사례 공모 수상지역과 시·군에서 자랑하고 싶은 도시숲·가로수·마을숲·치유숲 등 141곳을 추천받아 수록했다. 숲의 위치, 조성 기간, 조성 내역, 특이사항 등이 담겼다.

전남도는 브랜드시책인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이 2015년 지역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돼 받은 상사업비



5000만원을 활용해 지난 1년 간 작업했다.

전남도는 시·군 산림부서와 산림조합, 숲속의 전남 협의회, (사)숲속의

전남 등 ‘숲 속의 전남’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처음에는 보잘 것 없는 숲이었지만, 거대한 숲을 이루고자 했던 많은 분들의 힘과 노력, 긴 정성으로 위대한 자산이 됐다”며 “숲 속의 전남 화보집이 앞으로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데 척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다,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기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 주 공 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 산 공 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례동) Tel.063-835-4771